

# 1950년대의 한국에서 신축 정부청사 관련 문건에 나타난 “현대식”의 의미

## The Meaning of “modern style (*hyundae-sik*)” in Related Documents of the ROK Office in the 1950s

이 수 민

Lee, Sumin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우 동 선\*

Woo, Don-Son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Abstract

In 1961,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newly-constructed government building was completed. The government building, as ROK office, was erected as a twin with the USOM office in Sejong-ro. The reason why the ROK office and the USOM office were erected as a twin building is that the two offices were part of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s Seoul Buildings Project in 1954. Within the project, the FOA office and the ROK office were rarely separated, and naturally, the ROK office was built according to the US standards.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s which led by the US government were involved in the US architecture, engineering-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those AEC companies were familiar with the US technology and standards. In the phase of construction, Korean companies took part in the process under the supervise of Vinnell Corporation. The US expected to transfer its 'modern' and 'developed' technology through this process. The completed ROK office was widely known as the 'modern style (*hyundae-sik*)' building, which was body forth as glasses and new facilities. These factors were what the US emphasized for exporting architecture. The modifier, 'modern style (*hyundae-sik*)', given to the ROK office in the 1950s was a synonym for any new feeling that had never been seen hitherto. The newness of the ROK office, the 'modern style (*hyundae-sik*)' building, was specified as materials and facilities that indicates modern technology while in the absence of adequate knowledge.

주제어 : 정부청사, 유습 청사, 1950년대, 미국, 서울 빌딩 프로젝트, 기술원조, 현대식, 유리, 설비

Keywords : ROK office, USOM office, 1950s, US, Seoul Buildings Project, Technical aid, Modern style, Glass, Facility

### 1. 서 론

1961년 9월 15일, 세종로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인 신(新)정부청사<sup>1)</sup>의 낙성식이 열렸다. 낙성식에는 국가재

\* Corresponding Author : woods@karts.ac.kr

이 논문은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D1A1B03036199)

1) 이 논문에서 일컫는 1950년대의 신축 정부청사는 세종로(구 경찰전문학교 자리)에 유습 청사와 똑같은 외관과 규모로 들어선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61년에 준공했으며, PA&E(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 Inc.)가 설계하고 빈넬(Vinnell Co.)이 시공하였다. 이 건물을 ‘정부청사’라고 일컫는 것은 당시에 발간된 정부 문건과 신문 기사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문건으로는 다음의 7건이 있다.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관한건(제55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BA008531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관한건(제110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BA0085184);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

건축최고회의의장 박정희와 유솜(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계약관, 빈넬(Vinnell Co.) 회사장, 신성공업주식회사장, 한양건설주식회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8층으로 지은 정부청사는 “거의 전체가 유리로만 찬란하게 장식”된 무량관 슬래브 공법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이 건물에는 “전자두뇌를 가진” 자동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최신식 냉난방 장치와 환기장치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최신의 것들은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를 암시라도 하듯이, 정부청사의 바로 옆에는 ‘쌍둥이 건물’인 유솜 청사(현 미국대사관)가 놓여 있었고 함께 준공했다. 두 건물은 미국의 퍼시픽 아키텍츠 앤드 엔지니어스(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 Inc., 이하 PA&E)<sup>2)</sup>가 설계하고 빈넬이 시공하였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축 정부청사로, 세종로에 유솜 청사와 똑같은 외관과 규모로 들어섰던 정부청사를 다루고자 한다. 정부청사는 1954년에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청사와 함께 FOA의 ‘서울 빌딩 프로젝트(Seoul Buildings Project)’로 계획되어 1961년에 준공했다. 계획 당시에는 중앙청으로 계획되어 경제 4부처 및 주요 부처들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5.16 군사정변 직후에 준공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1963년 12월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해체된 이후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이어서 문화공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청사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2012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솜 청사와 정부청사가 똑같은 규모와 외관으로 지어진 사실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두 건물 중에서 유솜 청사를 중심으로 논의해

약권유안에관한건(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BA0085184);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한국서울에대한민국정부청사신축을위한입찰권유서(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BA0085184); 「정부청사 시설개요」, 미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한박006055); 내각사무처, 「정부신청사 낙성식 안내서」, 19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한박000852);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축을위한일본인 기술자입국승인에관한건」, 1961, 국가기록원 소장(BA0085207)

2)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서울에대한민국정부청사신축을위한입찰권유서(제114회)」(BA0085184) 문건에 따르면 “미 거주 ‘반 누이스’에 있는 태평양 건축회사”가 계획과 시방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1955년에 도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Edward A. Shay가 설립한 퍼시픽 아키텍츠 앤드 엔지니어스(Pacific Architecture & Engineers Inc.)이다. 주로 미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면서 성장했다. 정부문건과 신문기사에서는 “태평양 건축회사”, “미태평양건축기술회사”, “패시픽 아키텍처”, “PA&E”, “PAE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 논문에서는 퍼시픽 아키텍츠 앤드 엔지니어스의 60주년 책자(PAE History Booklet-PAE Celebrates 60 Years)에서 회사명을 PA&E로 부르다가 현재는 PAE로 부른다는 기술을 따라, PA&E로 통일하여 표기할 것이다.

왔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유솜 청사에 적용된 무량관 슬래브 공법과 최신 설비 등을 특징으로 꼽으면서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준 건축으로 평가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현대적’인 면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미국 원조기관의 건물인 유솜 청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건물이었던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며, 또 정부청사와 관련된 신문기사와 문건들에서 정부청사를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된 ‘현대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발간한 문건들과 미국 정부가 발간한 문건들, 그리고 당시에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주요 자료로 삼을 것인데, 냉전에서 미국 건축을 검토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정부청사 건축과 “미국의 기준”

### 2-1. 서울 빌딩 프로젝트(Seoul Buildings Project)

정부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은 1954년에 FOA(대의 활동본부)<sup>4)</sup>의 ‘서울 빌딩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립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호텔이 복합된 FOA 청사 및 직원용 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한국 정부를 위한 청사가 추가되었다.<sup>5)</sup> FOA와 한국 정부 양

3) 안창모는 『서울 2천년사』에서 ‘원조프로그램과 공공건축’에 유솜 청사를 분류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합리적 디자인과 무량관슬래브공법을 사용한 관공서 건축으로 현대건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때에 설계와 시공을 모두 빈넬사가 맡았다고 기술하였다. 이윤석도 유솜 청사를 외국원조로 지어진 주요 건축물로 분류하였다. 그는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대해 서술하면서 유솜 청사를 무량관구조와 에어 덕트(air duct)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로 서술하였다. 이덕수는 『한국건설통사』에서 광복 이후의 ‘건물 시공’을 서술할 때 정부청사와 유솜 청사를 함께 언급하며,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두 건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정부청사가 “미국의 건축 실무자들이 1950년대 모더니즘 경향으로 설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김정동은 빈넬의 주입기사로 근무한 이용재에 주목하며 그가 두 청사의 건축물 상세도와 견적 감리사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역사편찬원 편, 『서울 2천년사』 35, 서울역사편찬원, 2016; 이윤석,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 종합건축과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편, 『한국건설통사』 IV, 대한건설협회, 2017; 김정동, 「이용재와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207~217쪽)

4)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을 관할하던 기관이다. 효과적인 원조 운영을 위해 유엔군 총사령부 휘하에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주한경제조정관실)을 설치했다. FOA가 1955년부터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국제협조처)로 변경됨에 따라 OEC는 이를 이관 받아 ICA원조를 취급하였다. 이후 OEC는 1959년 7월에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주한미국경제협조처)으로 변경되었다.

5) Letter from J. J. Mettahn Jr.(FBO) to C. Tyler Wood, June 24, 1954;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쪽 모두에게 청사 신축은 필요한 일이었다. 당시 FOA는 조신포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쓰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FOA에게 조신포텔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sup>6)</sup> 한국 정부는 이때 사용하던 중앙청인 조선총독부청사 건물 대신에 새로운 중앙청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한 까닭도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청사 건물의 피해가 심해 수리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이 복합된 FOA 청사 및 직원용 숙소, 그리고 한국 정부를 위한 청사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여서 논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재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미국 원조기관의 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해당 건물들은 한국 정부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다.<sup>7)</sup>



그림 1. 정부청사 신축 부지를 촬영한 조감도, 1954<sup>8)</sup>

이 프로젝트는 미국 원조기관의 사무실과 그 직원용 숙소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FBO(Office of Foreign Buildings Operations)<sup>9)</sup>가 관여하였다. 한국 정부의 제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6) Message from CINCREP Seoul to CINCUNC Tokyo, March, 1955; in file 5-43 FOA Building; Project Files, 1955-1961, Box 3, Entry P 323;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7) Letter from C. Tyler Wood to Colonel James P. Pappas, May 4, 1954,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2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8) In file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1964, 319-CE; Record Group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9) FBO는 1946년부터 2001년까지 해외의 대사관과 사무실, 직원 숙

안으로 구 경찰전문학교 자리로 부지가 정해지기 이전에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는 이미 미국 회사들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사들은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모두 수행하고 일본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미국의 회사들이었다. OEC는 FBO의 경험과 정보에 따라 총 6군데의 회사들에게 제안을 했다.<sup>10)</sup> 최종적으로 FBO의 결정에 따라 킹 어소시에이츠(King Associates)가 선정되었다. 킹 어소시에이츠가 선정된 까닭은 최단 기간 및 최소 비용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 경험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킹 어소시에이츠의 “극동(Far East)” 지부<sup>11)</sup>는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일할 경력이 있어서, 그 역량이 이미 검증되어 있었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익숙해 있었다.<sup>12)</sup>

1954년 5월, OEC와 한국 정부는 두 청사를 똑같이 (twin) 짓는 데에 동의했다.<sup>13)</sup> 이는 설계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한편, FBO는 FOA 청사와 정부청사가 재료와 세부사항 등에서 유사할 것이지만 도면은 따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sup>14)</sup> FOA 청사와 정부청사는 똑같이

소 등 미국정부의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10) Skidmore, Owings & Merrill; Adrian Wilson & Associates; Antonin Raymond & L. L. Rado; John W. King Associates; Thomas B. Bourne Associates, Inc.; Butler, Baker & Triplett 이상 6군데의 회사들에게 제안을 했고 각 회사들은 제안서를 보냈다. 다만 Butler, Baker & Triplett은 제안서를 보내지 않았다. Letter from O. W. Lawson, Jr. to Won, Yong Suk, 25 May 1954,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11) 킹 어소시에이츠는 캘리포니아의 반 누이스(Van Nuys)에 본부를 두었다. 여기에서 일컫는 “극동 지부”란 도쿄와 오키나와의 지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킹 어소시에이츠는 인도의 마드라스, 방콕, 타이베이, 마닐라에도 지부를 두었다.

12) 킹 어소시에이츠가 선정된 이유를 밝히는 문서는 킹 어소시에이츠에 대해 분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2쪽 분량으로, 제목이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테일러 우드가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6/7월에 경제조정관 테일러 우드에게 이승만의 노트가 전달되었다. 테일러 우드가 전달받은 노트에는 이승만이 킹 어소시에이츠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에 대해 “명칭한 일본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쓰고 있다. 이후에 우드는 킹 어소시에이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서 우드는 킹 어소시에이츠가 왜 선정되었는지를, 그리고 킹 어소시에이츠가 일본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미국 소유의 회사”임을 밝히고 있다. “SPACE - King Associates,” n.d., Ibid.

13) “SPACE - King Associates,” n.d.,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14) Letter from J. J. Mettahon Jr.(FBO) to C. Tyler Wood, June

지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서 FOA 청사와 정부청사는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OEC는 이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설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FBO의 승인을 받았다. FBO의 담당자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 빌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시된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구 사항’에 명기된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크게 ‘사무실 건물(office building)’과 ‘주거(housing)’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호텔과 복합된 형태의 FOA 청사와 정부청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FOA 직원용 숙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청사 설계에는 한국 정부가 사용할 공식적인 청사라는 속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청사는 FOA 청사와 동일하게 ‘사무실 건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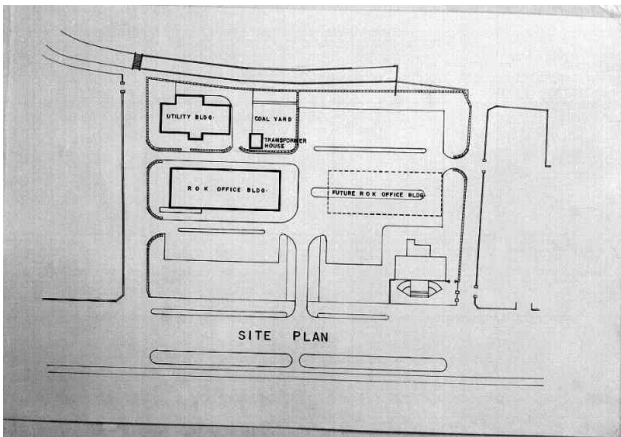


그림 2. 정부청사 배치도,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사무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건물이어야 하고, 사무공간은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거할 수 있는(움직일 수 있는)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해야 했다. 사무실 공간의 규모와 구획을 결정하는 문제에는 FBO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다. FBO의 가이드라인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사무실 건축에 적용되는 것이었다.<sup>15)</sup> 이처럼

24, 1954,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15) 이 가이드라인은 필요로 하는 공간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구 로비는 700평방피트 정도이어야 하고 방문자의 코트 룸(coat room)과 화장실, 전화부스, 리셉션, 경호인력 등이 이 공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Foreign Buildings Operations, "Space Allotment Outline Guide," n.d.,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서울 빌딩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기준”<sup>16)</sup>을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킹 어소시에이츠는 이러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1955년 3월 26일에 설계를 완료했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ICA/FOA가 이를 승인하였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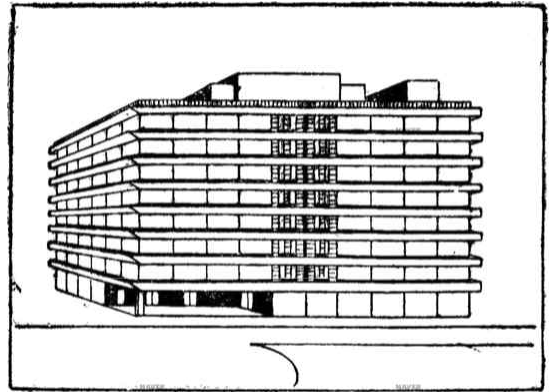


그림 3. 「새로 건립될 중앙청의 숙소도」, 『경향신문』, 1955년 10월 30일<sup>18)</sup>

그러나 1957년에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PA&E (Pacific Architects & Engineers)로 설계사가 변경되었다.<sup>19)</sup> 하지만 킹 어소시에이츠가 FBO에게 권고 받았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공간의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각각 철근 콘크리트 조의 채택과 가동식 격벽(可動式 隔壁)의 계획으로 구현되었다.

16) Inclosure I of Memorandum from Captain Fisher to Mrs. Shorter, October 12, 1954, "King Associates Inc. Contract,"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17)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계약권유안에관한건(제 110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294쪽

18) 해당 신문기사의 날짜를 고려했을 때 <그림 3>은 킹 어소시에이츠가 설계한 것에 근거한 축소도로 보인다. 반면, <그림 4>는 PA&E로 설계사가 변경된 후의 투시도이다.

19) 설계사가 킹 어소시에이츠에서 PA&E로 변경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서울 빌딩 프로젝트에서 FOA 청사와 직원용 숙소의 부지 문제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었고, 이 때문에 프로젝트의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킹 어소시에이츠는 John W. King이 설립했지만, 파트너로 세 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이 PA&E의 설립자인 Edward A. Shay이다. 또한, PA&E는 킹 어소시에이츠와 마찬가지로 본부를 캘리포니아 반 누 이스에 두고 있어, 킹 어소시에이츠와 인적 연계성을 비롯한 여러 유사성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 정부청사 투시도, 1958. (국립영화제작소, 「대한뉴스 제151호」,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N0005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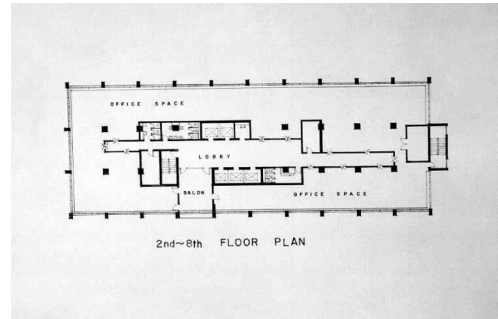


그림 6. 2~8층 평면도,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2-2. 정부청사 공사와 미국의 회사들

1959년 9월 11일, 국무원 사무국에서 정부청사 신축 공사에 대한 국제입찰이 개찰되었다. 여기에는 맥크로 하이드로-카본(Macrow Hydro-Carbon Co.)과 유타(Utah Construction Co.), 그리고 빈델이 응찰했다. 이때의 입찰 결과에 대해 전하는 신문기사는 “OEC 측의 반대로 국내 건축업자가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낙찰자 심사는 “동공사설계업자인 미태평양건축기술회사와 OEC 간에 합의 결정”하는 것이라고 썼다.<sup>20)</sup> 앞서 1957년 12월 6일자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sup>21)</sup> 이 계약은 설계변경을 맡은 PA&E와 OEC 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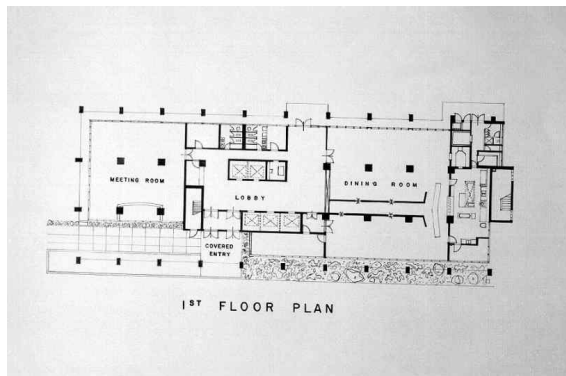


그림 5. 1층 평면도,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공사를 맡게 될 정부업자와의 계약서 초안도 OEC가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게 제안했다. 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으로는 3건이 남아 있어서 정부청사 신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 계약서는 국무원 사무국이 대표하는 한국 정부와 OEC, 그리고 “한국 서울에 정부청사 및 그 부속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격이 구비된 미국 상사”와 체결할 건설 계약서였다. 앞서 FOA 청사와 직원용 주택에 대한 계획은 이 계약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서 원래 부속건물과 한 쌍의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총 공사의 내용이지만, 이번 공사는 한 개의 사무실 건물과 기관실 건물(보조 발전기)에 한한 공사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 공사의 제1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와 OEC를 위하여 대단히 필요되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건축가나 업자로 하여금 최신 건축기술을 습득할 기회”이자 “그들로 하여금 건축의 공사 관리와 계획적인 물자구입 및 운송방법을 관찰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미국의 기술원조라는 형태로 가능한 것이었다.

1940~50년대에 미국의 대외원조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었다. 이때 미국은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더욱 선호했다. 따라서 기술원조도 직접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및 감독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미국 내 민간업체들이 활용되었다.<sup>23)</sup> 앞서 등장한 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청사의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20) 「최저가격 189만불 정부청사 국제입찰결과」, 경향신문, 1959년 4월 3일

21) OEC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고했다. 한국 정부는 1956년 8월 29일에 이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다음 해 4월 1일에는 PA&E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통고 받았다. 변경된 설계 도면은 1958년에 완성되어 한국 정부에 접수되었다.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 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110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22)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55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31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110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23)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18~119쪽

정부청사 신축 공사 국제입찰에 참여한 맥크로 하이드로-카본, 유타, 빈넬은 한국 정부와 OEC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에게 낮은 이득들이 아니었다. 이 세 회사는 모두 건축과 엔지니어를 함께 다루는 미국의 건설 회사들이었는데, 한국의 공업 재건을 위한 기반이 된 몇몇 공장들의 건설 사업을 맡은 바가 있었다. 1955년에 맥크로 하이드로-카본은 충주비료공장<sup>24)</sup>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유타는 대한중석화학처리공장<sup>25)</sup>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sup>26)</sup> 빈넬은 1957년에 인천 관유리공장을 준공하였고, 1956~58년에 국립의료원<sup>27)</sup>의 시공을 담당할 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국제입찰을 통해 빈넬이 정부청사 신축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 가장 큰 까닭은 빈넬이 최저가격을 입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들도 찾아볼 수가 있다.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의 기사들에 따르면, 빈넬은 OEC가 ‘경력자’라는 이유로 가장 선호한 회사였다.<sup>28)</sup> 여기에서 ‘경력자’는 공장이 아닌 건물의 시공을 맡은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넬은 국제입찰이 진행되기 전에 워싱턴에서 FOA에 서울 빌딩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관심을 표출한 바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그림 7, 8. 정부청사 신축 공사 광경, 1960,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331

19세기 중반부터 시도된 미국의 건축 수출의 양상과 그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전후(1945~1975)에 자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시도한 건축 수출 양상은 “전쟁과 평화를 위한 건축적 도구”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통한 기술원조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자국의 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에 가장 친숙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며 현지의 하청업체를 다시 두어 관리·감독을 했다. 미국은 이 방법을 통해 자국의 기술이 현지에 전이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것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였다.<sup>30)</sup> 이러한 연구성과는 정부청사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정부청사 신축 공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빈넬만이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신성공업주식회사, 한양건설주식회사도 참여했다.<sup>31)</sup>

### 3. 물리적 형태의 구축

정부청사는 건축되는 동안 “종래에 보지 못하던 굉장한 체모와 외양과 내용이 화려한”<sup>32)</sup> 건물이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정부청사는 각종 신문 기사를 통하여 “초근대식 건물”, “가장 현대적인 모양과 시설을 갖춘 8층 건물”, “현대건물”로 일컬어졌으며, 이 건물이 “상쾌한 근대식”으로 “말쑥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되었다.<sup>33)</sup> 이러한 기대들처럼 준공된 정부청사는

24) 정부에서는 비료·시멘트·관유리의 ‘3대 기간 공장’의 중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비료공장이었다. 충주비료공장은 UNKRA 자금과 FOA 자금으로 1961년 4월 29일에 준공하였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통사』 IV, 대한건설협회, 2017, 123~124쪽)

25) 1952년에 ‘한미중석협정’이 체결되어 중석[텅스텐]의 대폭적 증산을 기한 이래, 새로운 화학처리 기술로 기존에 폐기되던 중석을 활용하기 위한 공장이다. 이는 “한국의 중석개발을 위한 미국의 최신택 기술과 시설의 도입을 위한 협조를 얻게”된 것이었다. (「정부, 중석 광 개발 위해 미국 회사와 기술원조계약 체결」, 민주신보, 1953년 1월 10일)

26) 「불일협정조인 화학처리공장건설」, 동아일보, 1955년 12월 12일; 「국영기업체 운영백서(20) 대한중석」, 경향신문, 1961년 4월 22일

27)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은 1956년의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UNKRA가 체결한 ‘중앙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워졌다. 설계는 스웨덴의 G. Birch Lindgren이 하였고, 1958년에 준공하였다. 개원 당시 가장 현대적인 장비와 설비를 갖춘 병원이었으며, 서구의 선진 의료 기술과 문화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앞의 책, 138~139쪽)

28) 「ICA본부에 일임」, 동아일보, 1959년 10월 25일

29) Airgram from FOA/W to CINCREP Seoul and CINCUNC Tokyo, in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30) Jeffrey W. Cody, *Exporting Architecture 1870-2000* (New York: Routledge, 2003), pp.122~155

31) 1945~1960년 회계연도 OEC 프로젝트 및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빈넬은 자원개발 특별과 프로젝트(Resources Development Specialized division Program, 1954-60 FY)에서 한국정부의 내무부 프로젝트 중 ‘한국 관공서 건축’에 해당하는 회사였다. 이는 한국 행정건물 건축 감독과 축진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한봉석, 앞의 논문, 2016, 144~145쪽)

32) 「정부청사의 신축은 필요한가」, 조선일보, 1957년 12월 14일

33) 「정부청사 신축 계획 진보」, 조선일보, 1955년 3월 7일; 「90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에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부청사는 주변에서 가장 높았고, 좌측에 위치한 경기도청과 대조되어 현대적인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면모는 쌍둥이 건물로 지어진 유شم 청사와 함께 더욱 강조되었다. ‘근대식’, ‘현대식’ 등 표기는 다소 달랐지만, 기존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에 느껴지는 어떤 새로움이 정부청사에 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이 FBO가 주요 전후 프로젝트로 현대건축을 선보인 방법이었다.

FBO의 프로그램은 미국의 자원으로 재건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과 동시에 해외에서 미국의 존재를 눈에 띄게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냉전에 대한 대규모 조치와 그에 따른 경쟁으로 건축은 새로움의 일부가 되었다.<sup>34)</sup> 정부청사가 미국 원조기관의 건물과 함께 서울 빌딩 프로젝트 속에 묶여 똑같은 외관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은 FBO가 선보인 의욕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전쟁으로 피해를 겪었던 나라에서 미국의 건물들은 그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대체한 건물 및 그 주변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sup>35)</sup>



그림 9. 준공된 정부청사 광경, 1961,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331

정부청사를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건축으로 판단하는데 기여한 요소들은 미국이 자국의 건축을 수출할 때에 강조한 요소들이었다. 정부청사의 건물개요가 포함된 문건들을 포함하여 각종 신문기사들에서 정부청사를 설

일내에 착공», 조선일보, 1957년 12월 12일; 「최저 백97만블로 응찰», 동아일보, 1959년 4월 3일; 「전건물을 유리로 환기, 난방장치도 갖추어», 동아일보, 1960년 8월 17일; 「새정부청사준공», 동아일보, 1961년 9월 15일

34) Jane C. Loeffler, *The Architecture of Diplomacy: Building America's Embassi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p.8

35) Ibid, p.49.

명할 때에 강조점은 재료와 설비에 놓였다. 정부청사라는 “양건물은 최대량의 유리를 사용한”<sup>36)</sup> 8층 건물로서, 1층을 제외하고는 전층에 가동식 격벽이 설계되었다. 화장실은 그 수와 실내설계에서 “미국수준”<sup>37)</sup>에 따랐다. 또한, “전자두뇌를 가진”<sup>38)</sup> 자동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8층까지를 순식간에 오르내리도록”<sup>39)</sup> 설치되어 있었고, 에어컨과 난방장치가 “초현대시설”<sup>40)</sup>로 갖추어져 있었다. 정부청사를 새로운 건축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데에는 무량판 슬래브 공법을 적용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점이 작용했지만, 당시에 정부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일컫은 데에는 유리라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과 최신 설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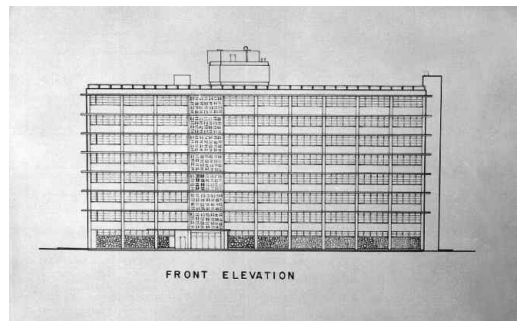


그림 10. 입면도,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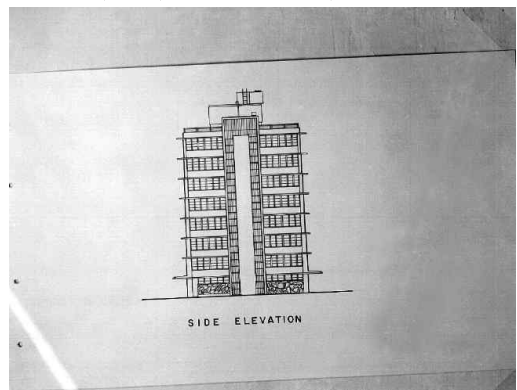


그림 11. 측면도,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유리는 미국이 해외에 건물을 지을 때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재료였다. 판유리는 건물의 투명함을 보장했고, 이렇게 구현된 건물의 외관은 첨단기술로서 상승된 건

36)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한국서울에대한민국정부청사신축을위한입찰권유서(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565쪽

37) 앞의 문서, 566쪽. 변기는 1/2은 서구식으로, 나머지 1/2은 동양식으로 설치했다고 일컫고 있다. 여기에서 서구식이란 양변기이고 동양식이란 좌변기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38) 「새정부청사준공», 동아일보, 1961년 9월 15일

39) 「전건물을 유리로 환기, 난방장치도 갖추어», 동아일보, 1961년 8월 17일

40) 위의 기사

물의 지위를 상징했다. 방대한 양의 판유리는 여러 현대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생산이 가능해진 새로운 산물이었기 때문이다.<sup>41)</sup> 정부청사 신축 공사에서 청부업자와의 계약을 위해 작성된 문건에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명시되어 있다. 다른 원자재들과 함께 판유리가 적혀있는데,<sup>42)</sup> 이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빈델이 인천에 판유리공장을 건설한 이래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었다.<sup>43)</sup> 유리는 또한 냉난방시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유리는 열효율이 좋지 못한 재료여서 실내의 온도 조절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유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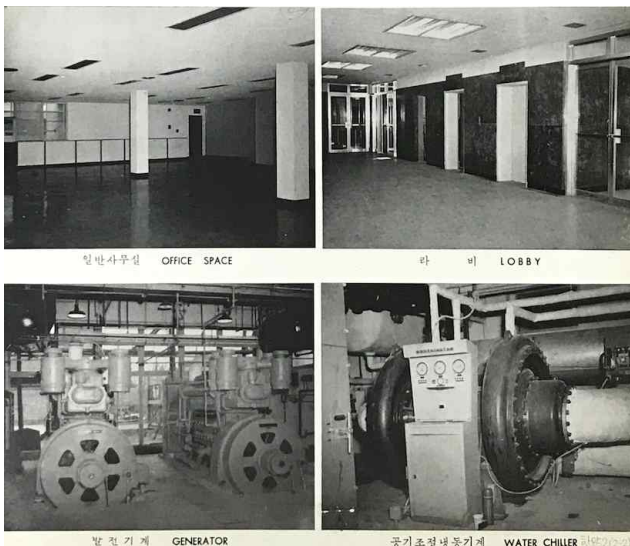


그림 12. 정부청사 실내와 설비, 『정부신청사 낙성식 안내서』, 19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한박000852

냉난방시설과 함께 엘리베이터는 미국이 그들의 현대성으로 내세우고자 한 기술적인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건물의 높이가 고층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8층의 정부청사는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에 확연히 높은 건물

41) Annabel Jane Wharton,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p.4~5

42) 판유리, 철근 콘크리트판, 시멘트 블록, 벽돌, 타일, 시멘트, 조립용 목재, 대리석, 테라조, 베니야판, 모래, 자갈, 화장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최소한 부합하는 한국산 건축용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와 OEC의 명백한 방침이며 또 본계약의 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앞의 문서, 599쪽)

43) ‘3대 기간 공장’ 중 하나인 인천 판유리공장은 1956년 2월에 착공하여 1957년 9월에 준공하였다. 휴전 이후 주요 건축 자재 중 하나인 판유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954년에 UNKRA 자금을 확보하여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공장은 1957년 10월 24일을 기해 우리나라 최초의 판유리를 생산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앞의 책, 124~125쪽)

이었다. 정부청사에는 미국 오티스(OTIS) 사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위해 따로 외국의 기술자들이 입국하기도 했다.<sup>44)</sup>



그림 13. 정부청사 전경, 1958. (국립영화제작소, 「대한뉴스 제151호」,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N0005739)

#### 4. 1950년대의 한국에서 ‘현대식’의 의미

1950년대에 정부청사에 덧붙여진 ‘근대식’, ‘현대식’, ‘현대적인’ 등의 수사(修辭)가 지칭하는 바는 어떤 새로운 면모가 느껴지는 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확실하게 구축된 물리적 표현에서 비롯되어 통용된 말이었지만, 이 과정에 현대건축과 그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지식이 개입된 것 같지는 않다. 정부청사의 건물 개요를 포함하고 있는 국무처 사무국의 문건에서는 정부청사의 양식을 “현대식”이라고 쓰면서 천장의 높이를 척(尺)과 치(寸)로 표기하고 있다.<sup>45)</sup> 척관법(尺貫法)이 통용되던 시기<sup>46)</sup>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건축의 ‘양식’을 ‘현대식’이라고 표기하는 모습은 새로운 건축을 접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식이 통용되지 못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단지 ‘현대식’이라고 칭하는 것만

44) 오티스(OTIS) 엘리베이터는 미국회사의 제품이지만, 일체의 제품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어 기술자도 일본인이므로 일본인 기술자 2명의 입국을 승인을 요구하는 문서가 남아있다.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건축을위한일본인기술자입국승인에관한건」, 1961,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207)

45) 「정부청사 시설개요」, 미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한박006055

46) 해방 이후 남한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도량형인 척관법(尺貫法), 1926년의 미터법, 야드·파운드법 등을 미터법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1959년 6월 10일에 국회에서 척관법 폐지를 위한 계량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1961년에는 이 법령을 공포하였고 1964년 1월부터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 등이 폐지되어 미터법으로 통일되었다. 정부에서는 미터법의 확산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미터법인 미터·킬로그램을 가르치지만 사회에서는 자·척, 관·근, 평 등을 사용하며 군대에서는 야드·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쓰고 있다. (이종봉, 「日帝 强占期 度量衡制의 운용 양상」, 한국민족문화, vol. 5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292~293쪽)



으로도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건축이라는 점이 전달되었던 것이다.

정부청사와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었던 김포국제공항과 우남회관이 또한 ‘현대식(혹은 근대식)’이라고 일컬어졌다. 김포국제공항종합청사는 정부청사보다 이른 시기인 1960년 2월에 준공했다.<sup>47)</sup>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항이 “현대식으로 건축”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체면에 관련되므로 동공항의 대합실 및 변소 등을 특히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sup>48)</sup> 김포국제공항종합청사의 개관식을 전하는 한 기사에서는, 종합청사가 “현대식 삼층 건물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었으며, “위생·난방·조명 및 통신 설비를 갖춘 근대식 건물”이라고 쓰고 있다.<sup>49)</sup> 우남회관<sup>50)</sup>은 정부청사보다 몇 개월 늦은 1961년 10월에 준공했다. 세종로에 위치한 우남회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4층 본 건물과 “1백 70척”<sup>51)</sup>의 10층짜리 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남회관은 개관 당시 에어컨과 승강식 이중회전무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점들이 특히 강조되었다. 정부청사의 새로움이 유리라는 최신 재료와 최신식 설비 및 시설로 표상되었던 바와 같이, 1950년대에 어떤 한 건물을 ‘현대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건물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흥이었고 이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 및 시설을 통해 구체화되어 전달되었다. 현대적인 기술을 표상하는 시설 및 설비가 구체적으로 ‘현대식 건물’임을 가능하게끔 해주었다. 이 당시에 ‘현대식(혹은 근대식)’으로 일컬어졌던 건물은 단지 ‘현대식(혹은 근대식)’으로 불리며 구체적으로는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47) 여기에서 말하는 김포국제공항종합청사는 1960년 2월 17일에 개관식을 가진 제1터미널이다. 미국 기술원조를 통해 한국 최초의 국제공항으로 계획된 김포국제공항은 차례로 증축되며 그 규모를 확장하였는데, 1960년에 개관한 종합청사는 그 시작이었다.

48) 「이승만대통령, 김포공항시설 현대화를 지시」, 조선일보, 1958년 1월 22일.

49) 「산뜻해진 김포공항」, 동아일보, 1960년 2월 18일

50) 우남회관은 1956년 착공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땀으나, 4.19혁명 이후에는 서울시민회관으로 개칭하여 준공했다. 건축가 이진승이 설계했다. 건물 안에는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었고, 여기에는 전자식 조명조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대강당에는 “미라크 스크린”이 설치되어 “씨네라마 및 씨네마스코프”를 상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우남회관에는 “오케스트라 피트” 승강장치와 “샤워실”, “투광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준공 가까운 시민회관」, 경향신문, 1961년 9월 17일; 「서울시민회관내사일낙성개관」, 동아일보, 1961년 10월 24일)

51) 「시민회관 어제 개관」, 조선일보, 1961년 11월 8일.

## 5. 결론

대한민국 최초의 신축 정부청사는 미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로 계획이 시작되어 미국의 기술원조를 통해 미국 회사들이 참여하여 지어졌다. 정부청사는 FOA의 서울 빌딩 프로젝트로 처음 계획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정부를 위한 각각의 청사를 똑같은 외관과 규모로 지을 것을 합의했다. 프로젝트 내에서 두 정부를 위한 두 청사는 사무실 건물로 묶여 거의 구분되지 않은 채로 다루어졌다. 서울 빌딩 프로젝트와 추후에 진행된 정부청사 공사에서 ‘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중요했다. 미국 원조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계획 및 설계, 그리고 공사 단계에서 킹 어소시에이츠, PA&E, 빈넬 등 미국 회사들이 참여한 것은 미국의 기술과 기준에 가장 친숙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설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사관 건축에 적용되는 FBO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물리적 구축을 도모하는 공사 과정은 빈넬의 주도하에 한국의 회사들이 참여하여 마무리되었다. 이는 기술원조의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현대적’이고 ‘발전된’ 기술이 전이되기를 기대했었다. 준공된 정부청사는 ‘현대식’ 건물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유리라는 재료와 새로운 설비 및 시설로 표상되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미국이 해외에 건물을 지을 때면 강조했던 것들이었다. 정부청사는 무량판 슬레브 공법으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데에서 새로운 건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주변의 건축들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새로움이 정부청사에 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FBO가 주요 전후 프로젝트로 현대건축을 선보인 방법이었다.

1950년대에 정부청사를 비롯하여 김포국제공항종합청사 및 우남회관에 부여되었던 ‘현대식(혹은 근대식)’이라는 수사는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경향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새로움은 현대적인 기술을 표상하는 재료와 설비 및 시설로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정부청사와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쌍둥이 건물로 지어진 유습 청사를 다루는 것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1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2. File Contracts-Housing, King Associates, 2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 Entry UD 1276;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3. "Project Implementation Order: Technical Support-USOM Office Building," 1960; file RG469, Office of the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Division, Entry #478, Box 23, 4, FY 62 Operating Development Grants thru FE/K: Industry, 1955 thru 1959, 2 of 6; Korea Subject Files, 1950-1961, Entry UD 478;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4. File 5-43 FOA Building; Project Files, 1955-1961, Box 3, Entry P 323;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5.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55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313
6.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110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7.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신영청부계약권유안에 관한건(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8.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한국서울에대한민국정부청사신축을위한입찰권유서(제114회)」, 1958,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84
9. 국립영화제작소, 「대한뉴스 제151호」, 1958, 국가기록원 소장, CEN0005739
10.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단기4293년도경제부흥특별회계세출예산중유숙 청사신축예비비지출안」, 19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251
11. 「정부청사 시설개요」, 미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한박006055
12. 내각사무처, 「정부신청사 낙성식 안내서」, 19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한박000852
1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정부청사건축을위한일본인기술자입국승인에관한건」, 1961,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207
14. Annabel Jane Wharton,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5. Jeffrey W. Cody, *Exporting Architecture 1870-2000*, New York: Routledge, 2003
16. 김정동, 「이용재와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11월
17.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2009
18. Jane C. Loeffler, *The Architecture of Diplomacy: Building America's Embassi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19. Alice S. Kim, *Airport Modern: The Space between International Departures and Arrivals in Modern Korean National Imagining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2013
20. 이종봉, 「日帝 强占期 度量衡制의 운용 양상」, 『한국민족문화』, vol. 5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2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2천년사』 35, 서울역사편찬원, 2016
22.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3.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통사』 IV, 대한건설협회, 2017
24. 이수민·우동선, 「수도 서울에서 정부종합청사의 입지와 건립」, 『건축역사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접수(2018. 8. 14)

수정(1차: 2018. 9. 22)

게재확정(2018. 10. 13)